

강상·누상의 재검토

-한국 청동기시대 매장양상과 사회분화 연구에서의 함의-

A Review of the Gangsang and Loushang : Korean Bronze Age Burial Aspec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Differentiation Studies

박 주 영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요남지역 적석묘의 매장양상

III. 강상·누상의 매장양상과 사회분화 연구

IV. 매장양상과 사회분화 연구에서의 함의

V. 맺음말

국문 요약

1960년대 조·중 공동발굴대가 조사한 강상·누상 적석묘의 구조, 매장방법, 부장유물 등에서 관찰된 매장양상은 당시 북한학계에서 노예주의 '순장묘'로 해석되어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노예소유 제국기'로 단정하는 사회구성체 논쟁의 단초가 된다. 남한학계에서는 초기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을 지적하고 동시성·강제성·종속성 맥락에서 순장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강상·누상 적석묘의 피장자들 간에 관계와 사회적 지위에 대해 '세대공동체'나 '혈연관계'라는 해석이 다시 논쟁의 절차 없이 수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강상·누상 적석묘의 사회분화 연구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비록 노예가 한 번에 순장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혈연관계나 세대공동체의 공동묘지로 추정하기에는 죽음의 상황과 매장양상이 불일치함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능성을 살펴해보아야 하며 현재 청동기시대 사회분화 연구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강상(崗上), 누상(樓上), 적석묘, 매장양상, 죽음의 상황, 사회분화

I . 머리말

1960년대 조·중 공동발굴대가 조사한 강상(崗上)과 누상(樓上)은 요동(遼東)반도 남단의 적석묘(積石墓)¹⁾ 유적이다. 이 일대는 고조선의 표지로 거명되는 지석묘, 비파형동검, 미송리형토기 등이 출토되는 옛 ‘고조선의 영역’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고조선 위치 비정에 대한 여러 논의(송호정 2016; 趙仁成 2016)를 차치하더라도, 한반도 남부 청동기시대 중기 청동기문화와 병행하는 강상유형(吳江原 2013a·b)과 같은 비파형동검문화와 관련되어 중국 동북지방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강상·누상 적석묘와 출토유물은 일찍부터 분묘 형태의 기원과 계승(강인구 1997; 배진성 2012; 오대양 2016; 이청규 2012; 任世權 1983), 비파형동검 및 청동기문화 발전 단계에서의 위치설정(강인욱 2018; 미야자토 오사무 2010; 이후석 2019·2020·2021)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유적임이 틀림없다.

반면 북한학계는 쟁점의 사안이 상이한데, 1950년대 후반부터 가열된 삼국시기 사회성격(사회구성체) 논의에서 비롯된다. 최초의 국가로서 서기전 1000년기(서기전 8~7세기)에 이미 발전된 ‘노예소유제국가’임을 설명하는데 강상·누상 적석묘의 매장양상이 강한 논거로 작동한다(김광진 외 1989; 김용간·황기덕 1969). ① 묘실 간 크기와 형태, 동검 부장 또는 부장품의 차별, ② 동시에 100여명의 사람이 주인을 위해 매장된 ‘순장’의 상황이 그 근거이다(김용간·황기덕 1967; 리지린 1971; 박진욱 1988).

권오영(1993)은 이를 ‘강상묘 순장제설(崗上墓 殉葬制設)’이라 칭하고 북한의 인식을 남한학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순장의 상황에 대한 동시성·강제성·종속성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강상·누상 적석묘가 순장묘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장자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또다른 논의에서도 ‘세대공동체²⁾’나 ‘혈연관계’라는 해석이 다시 논증의 절차가 없이 수용되고 있다.

1) 요동반도 일대에 산기슭이나 정상에 임지하며 하나의 적석구역 내에 보통 수십 기에 이르는 석관묘, 토광묘, 석곽묘를 안치하는 묘제가 발달하는데, 이러한 묘제를 적석총(積石冢)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고구려의 적석총과의 구분을 위해 적석묘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묘역 내 다양한 묘제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적석복합묘(積石複合墓)’라고 부르기도 한다(김승욱 2015: 102).

2) 세대공동체(世帶共同體)는 북한학계가 1970년대 사회의 말단 조직과 거시적 체계 변화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논리에 사용된 용어이다. 당시 모건(Lewis H. Morgan)과 엥겔스(Friedrich Engels) 등이 주장한 범주화된 지식이나 용어체계를 폭넓은 논증과 과학적 추론에 의거하지 않고 적용한 문제가 있다. 이미 구미학계에서 이룩한 1970년대 이전 가족과 가구에 대한 민족지 자료나 인류학 연구의 상당한 성과는 이 설명논리에 반영되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상·누상 적석묘의 사회문화 연구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비록 노예가 한 번에 순장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혈연관계나 세대공동체의 공동묘지로 추정하기에는 죽음의 상황과 매장양상이 불일치함을 들어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함을 피력한다. 이어서 현재 청동기시대 사회문화 연구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요남지역 적석묘의 매장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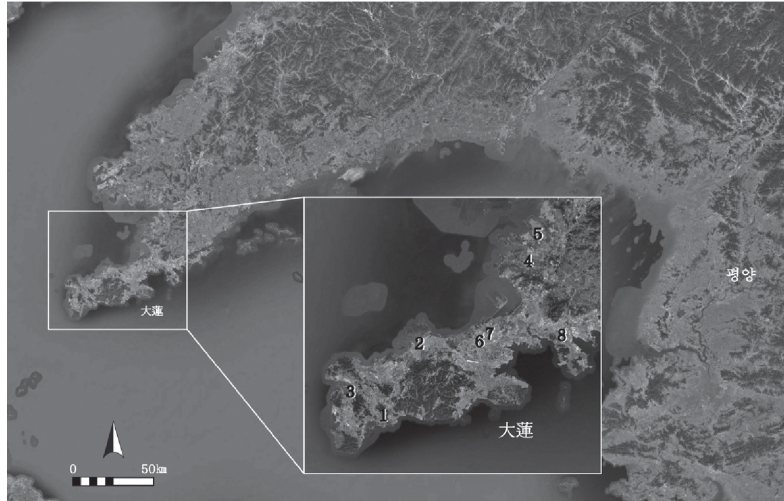
1. 대상 유적

적석묘는 요동반도 남단의 발해(渤海)연안지역으로 현재 행정구역상 요녕성(遼寧省) 대련시(大連市)일대에 해당된다.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9곳에서 대략 50여 기 정도의 적석묘가 발굴되었다. 주요유적으로는 여순(旅順) 노철산(老鐵山), 장군산(將軍山), 대련시 영성자(營城子) 사평산(四平山), 우가촌 타두(于家村 砬頭), 감정자구(甘井子口) 강상, 누상, 동가구향(東家溝鄉) 와룡천(臥龍泉), 금주구(金州口) 토룡자(土龍子), 왕보산(王寶山)유적 등이 있다(그림 1). 일제강점기 지표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을 더하면 백여 기 이상인데, 특히 장군산과 노철산, 사평산 유적은 적석묘가 각각 수십 여기씩 군집(그림 2)³⁾되어 있어 밀집도는 높으나 유적은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오대양 2016: 6).

초기의 적석묘는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산 정상부 또는 능선을 따라 수십여 기씩 열을 지어 분포한다(오대양 2016). 대부분 전체적인 규모와 구조, 묘역 내 묘실 개수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능선보다 정상부에 위치한 적석묘가 규모가 크고 수장품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늦은 시기로 갈수록 점차 낮고 평탄한 구릉지로 옮겨가는데, 10기 미만 혹은 단독으로 입지한다. 강상·누상 적석묘

지 않았다. 우리학계에서 1990년대 후반 三韓 사회조직 복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용되었는데, 북한학계가 주장하는 용어와 설명논리가 유사하게 적용된 채 인식의 진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취락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분묘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색함이 있다. 익숙한 용어의 사용도 좋지만, 논리와 이론상의 허점을 계속 배태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김범철 2018: 7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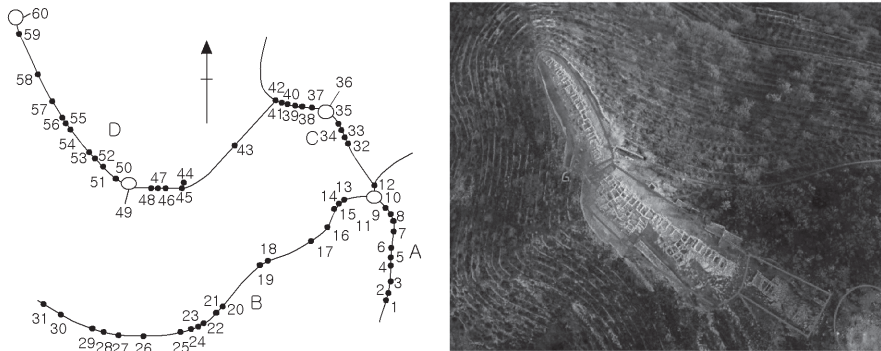
3) 장군산유적은 20여기, 노철산유적은 40여기(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사평산유적에서는 총 60여기 가량의 적석총이 조사되었으며 발굴된 것은 8기(32~39호)이다(오대양 2016: 8).



[그림 1] 요남지역 주요 돌무지무덤 분포도 (오대양 2016: <지도 1> 수정 후 재편집)
 (1. 노철산·장군산, 2. 사평산, 3. 우가촌, 4. 왕보산, 5. 톨롱자, 6. 강상, 7. 누상, 8. 와룡천)

가 조성되는 시기에는 내륙쪽으로 옮겨가며 저평한 단독대지에 1기만 조성⁴⁾된다(백종오 2018; 하문식 2013).

요동지역은 크게 북부의 마성자문화와 남부의 쌍타자문화, 이어지는 쌍방문화로 대표(백종오 2018; 오대양 2015·2016)되는데, 강상유형을 따로 설정(오강원 2013:



[그림 2] 이른 시기 적석묘의 분포와 구조
 (左: 사평산 적석묘의 분포, 右: 안자산 적석묘 전경 [姜超 2019: <圖 8>, <圖 11>를 재제도 및 수정함)

4) 강상·누상 적석묘가 단독 입지한다는 견해와는 달리 강상·누상 적석묘가 위치하는 언덕 사이에도 2개소 정도의 언덕이 더 분포(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68)하고, 강상묘의 동쪽(약 100m) 언덕에도 같은 형식의 적석묘가 조사된 적이 있어, 경작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고려하면 강상·누상 적석묘의 연결구간은 둔덕상의 선형 지형으로 추정될 수도 있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강상·누상 적석묘처럼 2~4기가 수백미터 거리 안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것과 와룡천과 같이 단독분포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므로 입지의 급진적 변화라기보다는 점진적 변화양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이후석 2020: 50).

196)하기도 하고 쌍방문화와 합쳐 설정하기도 한다(백종오 2018; 趙賓福 2009). 또는 요동반도 남단지역에서 서주 후기부터 전국 전기 무렵까지 유행한 적석묘문화나 비파형동검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강상문화를 설정하기도 한다(이후석 2020·2021). 중국 동북지방에서 강상·누상 적석묘의 시간적 위치와 다른 유형간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청동기시대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지역별 병행관계(천선행 2014: <표 6> 수정 후 전재)

요서		요북지역	요동산지	요동반도 남단						요동반도 동안	한반도 남부	
하가림 하층	조물고기 평정산2기		미성지4기	소주산상층						석포산 (고)	신석기 시대	
	평안포2기		고대산 1단계	미성지1기	쌍타자1기							단타자
	고대산 2단계		평안포 3기1단	마성지2기	쌍타자 3기	양두와유림 (노정산후편)	양두와유림 (영성지후편)		대취자 유림	고려제	석동산 (신)	
	평안포 3기2단	고대산 3단계				진업	일두와	대타자F4F5	쌍F12?			3A기
							중업	대타자F5F6	쌍F7F17			3C기
	평안포 3기3단	고대산 4단계	후업	우가촌F1	대타자2중	쌍F2	3D기					
	하가림 상층	물두산1 1단계	평정산 2기	미성지3기	삼마석상층	타두1단계	쌍F1·외적층/강상하층		(쌍빙M6?)	중기		
		2단계				타두2단계	?					
		3단계	타두3단계			?						
		물두산2 3단계	3기2단			4단계 신락상층	목양성1후(고)	?				
물두산3 3기		3기3단	신성지			?	쌍단검묘 강상묘	삼마석M11				
심이대영자		신성지		목양성1후(신)	우가촌하층1기	누상	삼마석A하층	후기				
청가리자										삼마석A상층	후기	

요남지역 적석묘의 연대구분은 [표 2]와 같다.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묘는 소주산 4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소도둔 적석묘로 보인다(姜超 2019). 용산문화기 유물이 출토되는 적석묘가 조성되는 시기를 소주산 5기로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빈도가 낮고 쌍타자 1기 유물이 공반되기 때문에 대체로 쌍타자 1기부터 3시기로 구분한다. 1기의 중심 연대는 서기전 20~19세기 전후에 해당하며, 쌍타자 2기에 해당하는 적석묘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오대양 2016; 趙賓福 2009). 2기는 쌍타자 3기의 우가촌 타두, 토룡자 적석묘로 쌍타자 3기문화와 병행하는 서기전 15~11세기이다. 3기는 강상, 누상, 와룡천 적석묘로 비파형동검문화기인 서기전 8~4세기의 유적이다(오대양 2016). 요남지역 적석묘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기 적석묘와 중원지역 홍산문화 후기 적석묘와의 연관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입지과 구조적 특징, 출토 유물을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계승성이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백종오·오대양 2013; 오대양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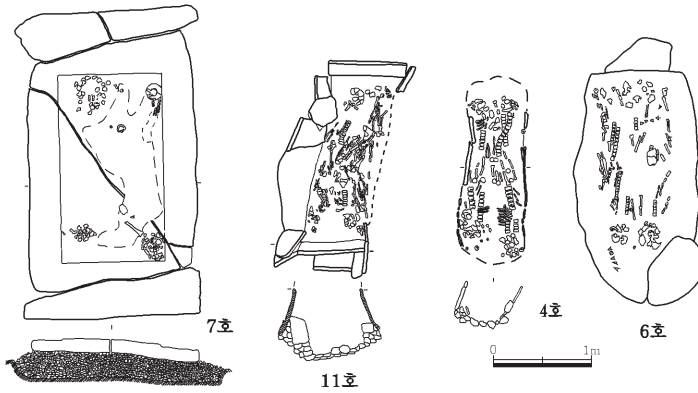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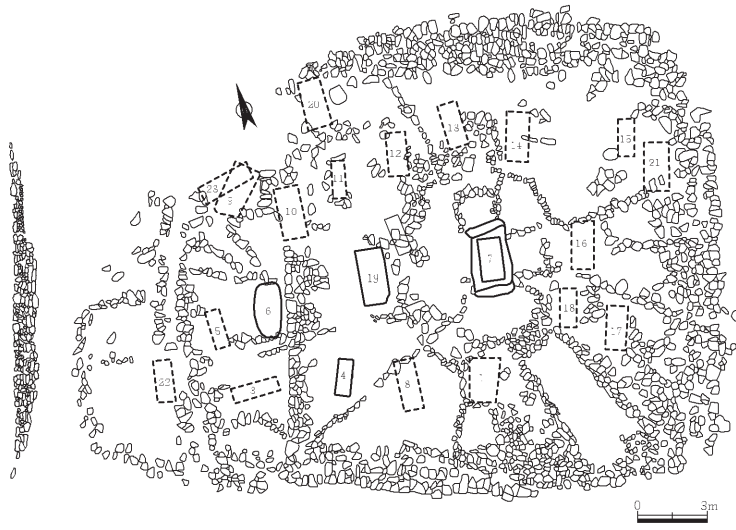
[표 2] 요남지역 적석묘의 시대구분 (姜超 2019: <表1> 전재 후 수정함)

시기구분(中)	신석기시대		청동시대		
시기구분(韓)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관련문화	소주산4기	소주산5기	쌍타자1기	쌍타자3기	쌍방
B.C.20	小島屯				
		四平山 文家屯 鞍子山 王寶山			
B.C.10			鞍子山 王寶山 老鐵山·將軍山 張家嵐後山		
				土龍子 于家村砵頭	
					崗上 樓上 臥龍泉

이미 요남지역 적석묘의 현황과 개별 특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연구(백종오 · 오대양 2013; 오대양 2016; 이후석 2020; 하문식 2013)가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본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상 · 누상 적석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주요 매장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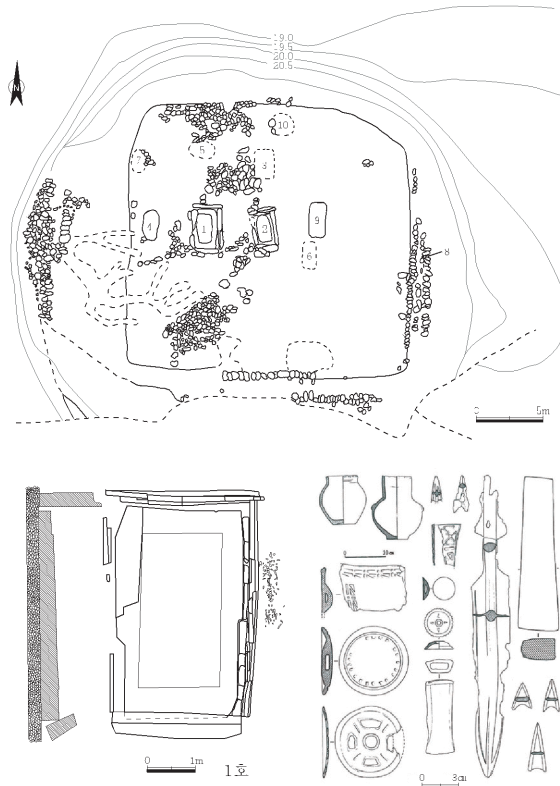
요령성 대련시 감정자구 후목성역촌(後牧城驛村) 서북쪽의 대지성 독립구릉 정상부에 조성된 적석묘이다. 1964년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발굴조사하였다(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1966). 28×20m 너비의 적석묘역 내부에 23기의 묘실이 7호 묘실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구획된 구조이다. 구획 및 바닥 수평차를 고려할 때 2~3차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묘실 내부에서는 화장된 인골 여러 구와 비파형동검, 김파두식, 선형동부 용범, 동축, 장신구 등의 청동기와 환상석기, 석촉, 방추차, 구슬 등 석기, 뉘시바늘, 비녀, 송곳 등 골각기와 패식(貝飾)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3).



[그림 3] 강상 적석묘 및 묘실의 매장양상

2) 누상

강상 적석묘로부터 동남쪽 450m 지점에 위치하며 낮은 대지성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1958년에 동검이 수습되어 여순시박물관에서 노출된 3기의 묘실을 수습조사 하였고 이를 계기로 1964년 조·중 공동 발굴단을 조직하여 발굴조사하게 되었다(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1966). 30×23m 묘역 내에 10개의 묘실이 확인되는데 묘역 상당부분이 교란되었다. 1차 묘역을 조성한 후 검정자갈층을 깔아 2차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묘실 내부에서는 화장된 인골 여러 구와 비파형동검, 도자, 장신구 등의 청동기, 석촉, 방추차, 지석, 구슬 등 석기가 출토되었다(그림 4).



[그림 4] 누상 적석묘와 1호 묘실 및 출토유물(하문식 2013: <그림 16>을 전재 후 수정함)

2. 주요 매장양상

1) 묘실의 배치와 구조

이른 시기 적석묘와 강상·누상 시기의 적석묘는 입지뿐만 아니라 축조 순서와 구조에 차이가 있다. 이른 시기의 적석묘인 장군산과 노철산 적석묘는 대체로 1열 또는 2열 이상 병렬 배치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줄로 배열된 것은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축조하였다. 조성 방법은 바닥을 정지한 후 할석을 이용해 묘실을 만들고 위를 적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룡자 적석묘의 경우 한 줄로 배열되어 있으나 동 시기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시기 차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축조하였다(백종오 2018). 이에 비해 강상 적석묘는 구릉의 정상부에 돌담을 둘러 묘역을 조성한 다음 중앙에 대형의 7호 묘실을 두고 방사상의 석축 기반열을 따라 다수의 묘실을 배치하였다. 묘역의 서쪽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묘역을 증설 한 후 전체 묘역을 검은 흙이

섞인 자갈로 덮었다. 누상 적석묘는 구릉의 요철부분을 황토가 섞인 자갈로 메우고 주변에 커다란 돌로 담을 쌓고 중앙을 평평한 대지로 만든 후 내부에 묘실을 설치하였는데 강상과 유사하게 묘역 전체를 흙과 자갈로 덮었다(권오영 1993; 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1966). 대체로 이른 시기 적석묘는 간격이 조밀하고 묘벽이 연결해 있거나 적석으로 이어지는데 비해, 강상·누상 적석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묘실을 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 묘실의 구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벽은 아무런 시설이 없고 바닥에 판석을 깔 유형(Ⅰ), 판석을 세운 석관형(Ⅱ), 바닥에 소토를 깔 유형(Ⅲ), 바닥에 자갈을 깔 유형(Ⅳ), 생토를 그대로 사용한 유형(Ⅴ)이다.⁵⁾ 묘실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간의 관계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강상 적석묘 묘실 일람

유형	묘실	너비(m ²)	체적(m ³)	인골(명)	부장품(개수)
Ⅰ	6	3.50	4.56	7	銅劍(1), 銅釧(3), 石鏃(12), 砥石(1), 石珠(2)
	7	5.27	7.37	3	銅環(1), 銅塊(1), 銅釧(2), 石鏃(2), 石珠(69), 垂飾(2), 貝飾(2), 土器(1)
	19	3.52	3.56	18	銅劍(1), 銅塊(1), 劍把頭飾(1), 石鏃(1), 垂飾(1), 土器(1)
Ⅱ	4	1.08	1.50	7	銅劍(1), 多頭石斧(2), 紡錘車(1), 石珠(6)
	5	1.02	1.32	8	銅矛(1), 銅製飾(1)
	11	1.04	1.09	6	紡錘車(2), 石珠(3), 垂飾(1)
	14	2.14	2.99	13	銅釧(1), 石鏃(4), 銅簪(1), 銅劍(4), 石珠(50), 骨製簪(1), 土器(2)
	15	(1.14)	-	4	없음
Ⅲ	1	2.60	3.27	9	靑銅釧(2), 石珠(3)
	10	1.15	1.28	9	石珠(1)
Ⅳ	2	1.02	0.76	미상	石珠(1), 垂飾(1), 土器(1)
	3	1.36	1.27	2	紡錘車(1), 石珠(3)
	8	2.00	2.61	11	石鏃(1), 多頭石斧(1), 骨鈞鏃(1), 石珠(457), 垂飾(2)
	9	2.64	3.93	11	銅劍(1), 石鏃(2), 砥石(1), 石珠(1), 土器(1)
	12	(1.60)	-	5	石鏃(1), 紡錘車(3), 垂飾(1), 土器(2)
Ⅳ	13	1.80	1.54	5	銅劍(1), 劍把頭飾(1), 石鏃(2), 石珠(29), 土器(4)
	16	2.09	2.13	5?	銅釧(1), 石鏃(5), 溶范(4), 石珠(124), 骨簪(2)
	17	1.97	2.96	7	銅塊(1), 石環(1)
	18	1.27	1.45	3	銅劍(1)
	20	2.31	3.23	2	紡錘車(1), 石珠(2), 土器(2)
	21	2.34	3.39	4	石珠(19)
	22	1.50	2.45	4	없음
Ⅴ	23	2.38	4.28	3?	骨錐(1), 土器(1)

5) 누상 적석묘의 보고자에 따르면 판석을 세운 석관형(Ⅰ), 바닥에 판석을 깔 유형(Ⅱ), 바닥에 자갈을 깔 유형(Ⅲ)으로 나누고 있지만 편의를 위하여 강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4] 누상 적석묘 묘실 일람

유형	묘실	너비(m ²)	체적(m ³)	인골(명)	부장품(개수) ⁶⁾
Ⅰ	4	3.70	3.30	4	瑪瑙珠(2)
	9	4.32	5.18	13?	銅鏃(2), 銅泡飾(1), 銅排쪽(2), 銅劍(1), 石鏃(6), 砥石(1), 骨珠(10), 土珠(59), 玉珠(10), 瑪瑙珠(4), 垂飾(3)
Ⅱ	1	6.56	4.85	2? (外-12?)	銅劍(3), 銅珠(3), 銅泡飾(14), 銅飾(1), 瑪瑙珠(1), 石泡(1), 石球(1), 異形銅器(1), 銅刀(1), 銅泡飾(19), 銅飾(6), 紡錘車(1) 등
	2	3.50	3.50	2?	銅泡(1), 銅飾(3)
	3	-	-	미상	銅劍片(1), 銅劍(4), 銅斧(2), 銅鏃(1), 銅刀(1), 劍把頭飾(2), 銅錐(1), 銅鈴(1), 異形銅器(5), 銅泡飾(12), 銅飾(19), 銅求(4), 銅環(3), 明刀錢(3), 紡錘車(1), 土器(1), 管玉(4), 貝飾(1), 瑪瑙飾(1) 등
Ⅴ ⁷⁾	5	(1.14)	(1.32)	4 ↑	石鏃(1), 石珠(1), 砥石(1), 土器(1)
	6	(2.10)	1.59	15	銅劍(1), 土器(1)
	7	1.08	2.79	2 ↑	없음
	8	(1.75)	(2.22)	5?	없음
	10	(2.56)	(2.56)	미상	없음

2) 매장 방법과 유물

강상 적석묘에서는 전체 23기의 묘실에서 144개체 분의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최소 2명에서 최대 18명에 이르기까지 성인 및 유아가 묻힌 후 화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로는 인골 사이에 아무런 간층이 없이 여러 벌 쌓여 있으며 일정한 방향 없이 엮놓여 있고 소아 인골 또한 성인 인골 사이에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에 따라 화장이 수시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주검을 모아 적당한 시기에 한꺼번에 화장을 하고 사람뼈를 부위별로 모아서 묻는 간골화장(揀骨火葬)일 가능성(하문식 2013:80)으로 여기기도 한다. 강상 적석묘의 2·12·23호 묘실에서 화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추가장이나 시간차일 가능성으로 보기도 한다. 누상 적석묘 또한 묘실에서 여러 개체의 인골과 화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강상 적석묘의 부장품은 모두 870여점이 확인되었는데 토기는 관(罐), 발(鉢), 두(豆) 등의 흉도와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석촉, 환상동기, 각종 장신구가 확인되었으며 불에 녹은 청동 덩어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석기로는 용범 4점과 석촉, 검과두식 등 50여 점이 출토되었으며 이 외에 뼈 낚시 바늘과 뼈 송곳, 구슬 등이 있다(표

6) 밑줄 친 유물은 1960년 여순박물관 조사시 수습된 것으로 3호의 경우 교란 당시 1호의 유물이 일부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초중공동 고고학발굴대 1966: 放腹博物館 1960).

7) 보고자는 자갈무덤으로 분류하였는데, 바닥에 자갈을 깔 것이 아닌 자갈층을 굴광하여 매장한 것으로 별도 바다 시설을 하지 않은 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부장품의 분포 및 공반 관계는 [그림 6]과 같다. 누상 적석묘의 부장품은 조·중 공동 고고학발굴대가 조사하기 이전 여순박물관에서 조사시 수습된 유물이 있는데 이미 교란된 상태에서 수습되어 소속이 분명치 않은 것도 있다. 동검, 동부, 동착, 동추(銅錐), 동령, 원형장식, 도자 등 청동기류와 토제 방추차, 구슬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표 4).

Ⅲ. 강상·누상의 매장양상과 사회문화 연구

앞서 살핀바와 같이 강상·누상 적석묘는 요동반도 남부라는 지역적 한정성과 하나의 적석분구에 여러 매장주체부를 갖는 구조, 다인·다차장과 화장 등의 장법, 다양한 청동기와 석기, 토기 부장이라는 측면에서 일찍이 주목받아 왔다. 특히 피장자와 이들의 관계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북한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이미 학계에 조성되어 있던 경제적 사회구성체 발전단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비해 남한학계에서는 강상 적석묘를 고대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인식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 다음에서는 북한과 남한 학계의 강상·누상 적석묘의 사회문화 관련 연구 흐름과 주요 내용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사회구성체 논쟁과 순장묘

북한학계에서는 해방 전·후부터 백남운 등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 역사주의자에 의해 사회구성체 발전단계에 입각한 시대구분론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원시공산제를 거쳐 삼한의 단계에서 부족국가가 성립하고 삼국의 노예국가를 지나 통일신라의 과도기 이후에 봉건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이후 노예제사회의 존재유무와 그 시기설정문제가 쟁점화된다(김광진 외 1989: 145~453).

1956년 삼국의 사회경제구성에 대한 토론과 고조선 논쟁(연혁, 영역, 사회구성) 및 1957년 조선봉건사회의 토지소유구조에 관한 토론(김광진 외 1989)을 거쳐 삼국 시대 사회성격을 노예제가 아닌 봉건제사회로 결정하고, 사회구성체의 변화는 계기

적인 것이므로, 삼국봉건제 이전의 사회는 당연히 고대노예제단계, 곧 고조선을 고전적 노예제사회로 규정하였다. 이후 1962년 《조선통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원시공동체 사회-노예 소유자 사회(고조선, 부여, 진국)-봉건사회(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를 정립한다(이선복 1992: 35).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실시된 1963~1964년 강상·누상, 와룡천 적석묘 조사 보고(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1966)에는 순장, 혹은 노예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1967년 이후 본격적으로 순장묘임을 주장(김용간·황기덕 1967)한다. 강상 적석묘의 경우 23기의 묘실 중 7호 묘실을 중심으로 나머지 22기의 묘실은 종속적인 관계로 보았다. 7호 묘실은 먼저 축조된 동쪽 묘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주위에 원형의 돌담을 두르고 대형의 묘실에 판석 바닥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도 차별된다. 무엇보다 다른 묘실에서는 많게는 18명에 이르는 많은 피장자가 문헌에 비해 7호는 3인만이 매장되었다. 도굴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서 녹아 뭉쳐진 청동덩어리가 다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막대한 청동제 부장품이 부장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를 더하였다. 이를 근거로 강상 적석묘는 100여명의 노예를 순장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이 있는 노예주(奴隸主)의 묘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누상 적석묘에도 적용하여 1, 2호의 규모가 다른 묘실에 비해 크고, 판석 바닥에 100점 가량의 청동유물이 부장되어 있으면서 이에 비해 인골은 2개체 분에 불과한 점을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기전 8~7세기경 서북조선-요동반도에 걸친 노예소유자국가가 바로 문헌 기록의 (고)조선이라는 것이다(권오영 1993; 김용간·황기덕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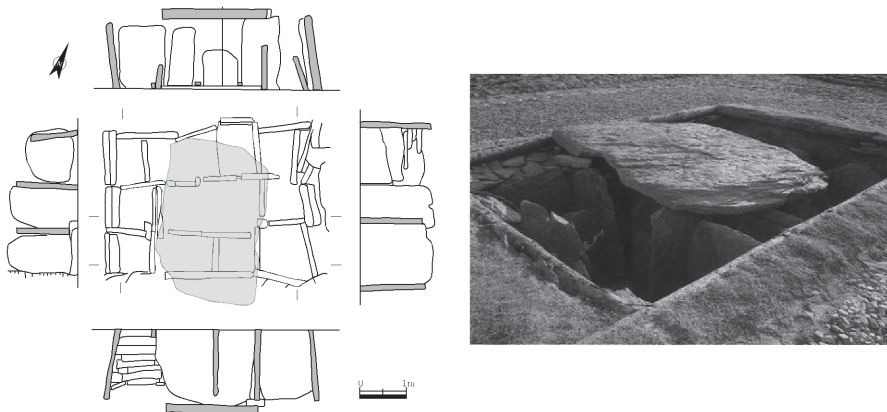
이후의 연구자들은 강상 적석묘의 7호 묘실과 누상 적석묘의 1, 2호 묘실의 우월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몇 가지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을 통해 주장을 강화해 나간다. 매장양상을 통해 피장자 계층뿐만 아니라 직종별 분화를 상정하기도 한다. 강상 적석묘의 7호 묘실과 동일하게 판석바닥을 사용하는 9호와 19호 묘실은 노예주의 은총을 받던 노예와 그의 가족이며 무기가 출토된 묘실은 호위를 맡은 노예, 방추차가 출토된 묘실은 방적(紡績)에 종사, 청동 용범이 출토된 16호 묘실의 피장자는 청동주조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용간·황기덕 1967).

1970년대에 들어서 리지린(1971) 또한 강상·누상 적석묘의 피장자는 동일한 시기에 순장된 노예임을 거듭 강조하며 고조선의 귀족간에는 순장체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렇게 많은 수의 노예는 가내노예일 수 없으며 생산노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누상 적석묘의 3호 또한 1·2호와 함께 중심묘실로 인정하였

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누상 적석묘 1·2호가 중심묘실인 것을 거듭 강조하는 등 큰 변화는 없다(박진욱 1988). 이즈음 강상·누상 조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 분업의 전개, 잉여생산물 축적을 통한 빈부격차의 발생으로 원시공동체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덕형 지석묘의 분포가 적은 요동지역에서 부족연합이 먼저 형성되어 대(大)노예소유자계급이 등장하며 강상·누상 등의 적석묘가 조성되고 부족연합이 좀 더 강력한 지배체제를 확립하여 고조선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황기덕 1987a·b).

1990년대에 황기덕(1990)은 강상·누상, 와룡천 적석묘가 순장묘임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중의 한명으로 20여년이 흘러 강상에 대해 ‘고대의 대노예소유자인 고관귀족의 무덤, 또는 고대 초기의 유력한 가족인 가부장제적 가족장의 무덤’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상 피장자에 대한 상당히 후퇴된 입장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19호 묘실 피장자는 친위병과 그의 가족, 15호와 22호는 순장당한 노예나 다른 없으며, 7호는 주인공과 처·첩, 어린이빠가 발견된 묘실(5·9·10·14·15·19·21호)은 순장을 강요당한 노예 또는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예로 보고 있다. 누상 적석묘는 노예주의 묘실로 평가했던 2호 묘실이 도굴 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전에 주장되었던 1~3호가 다른 묘실에 비해 우월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번복하게 되는 것이다(권오영 1993).

더구나 이러한 관점을 적석묘가 아닌 분묘에 대해서도 적용하는데, 서북한지역의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묘(김중혁 1995)는 반지하식으로 판석을 이용해 큰 무덤칸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판석을 세워 동서에 3개, 남북에 2개씩 작은 칸이 설치되



[그림 5] 성천 룡산리 석관묘

어 총 11칸의 묘실을 마련하였다(그림 5). 순장묘로 보는 근거는 중앙칸을 중심으로 둘레에 작은 무덤칸이 있는 배치는 주종관계이며, 중앙칸 상부의 개석은 축조와 함께 피장자가 동시에 매장되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칸에는 인골이 2개체 있었던 반면, 주위의 작은 무덤칸에는 3~4개체분의 유골이 무질서하게 겹놓여 있어 최소 30여 명의 노예가 순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칸에서만 청동조각이 남아 있어 청동기가 다수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작은 칸에서는 석부와 팽이형토기편 또는 유물이 없는 칸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은 강상·누상 적석묘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백함을 밝히고 있으며 연대추정 결과 단군릉의 연대보다 빠르므로 이미 노예소유자국가가 형성되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보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546~547;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

북한학계의 연구가 (경제적) 사회발달단계의 틀 속에서 지닐 수밖에 없는 해석의 한계점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남한학계가 신진화론적 사회발달단계를 고조선과 청동기시대에 적용하기 위해 겪었던 진통(金庚澤 2004)과 현재 복합사회 연구의 분위기를 비교한다면 큰 이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상 적석묘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유보되고 있다는 점(권오영 1993; 김용간·황기덕 1967; 황기덕 1990)이 그나마 고무적이다. 더구나 1990년대 단군릉 발견을 시작으로 ‘대동강문화’ 연구를 위해 평양 일대를 중심(하문식 2006; 황재훈 2015)으로 고고학조사와 연구가 집중되는 점 또한 더 이상 강상·누상 적석묘가 재론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군조선과 청동기시대 유적을 연계하는 작업에 있어 편년 체계의 상향이 불가피해지면서 연대가 서기전 10세기 이후로 고정되어 있는, 이제는 변방이 된 지역의 강상 적석묘로는 고조선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평양 일대가 관심의 중심이 되면서 씨족사회중심의 원시공동체를 대변하는 집합식 장법인 침촌리형 지석묘에서 독립식 장법인 오덕형 지석묘로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1970·80년대 지석묘 및 석관묘 발굴조사가 11건에서 90년대 38건으로 증가(황재훈 2015)하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2. ‘강상묘 순장제설’의 반박과 재해석

남한학계의 강상·누상 적석묘 연구는 ‘강상묘 순장제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

는 데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강상 적석묘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비파형동검문화의 기원과 연대에 대한 연구에 시각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 중 권오영(1993)은 고대사 연구의 중심이 삼국시대에 맞춰져 있어 고조선의 사회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는 지체되어 있고, 역사학계에서 강상 적석묘가 고조선의 사회성격을 이해하는데 유효한 자료임은 인식하였으나 유적 자체에 대한 엄밀한 검토과정 없이 북한학계의 강상묘 순장제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고조선 사회 성격 규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강상 적석묘가 관건이 되며 강상 순장제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격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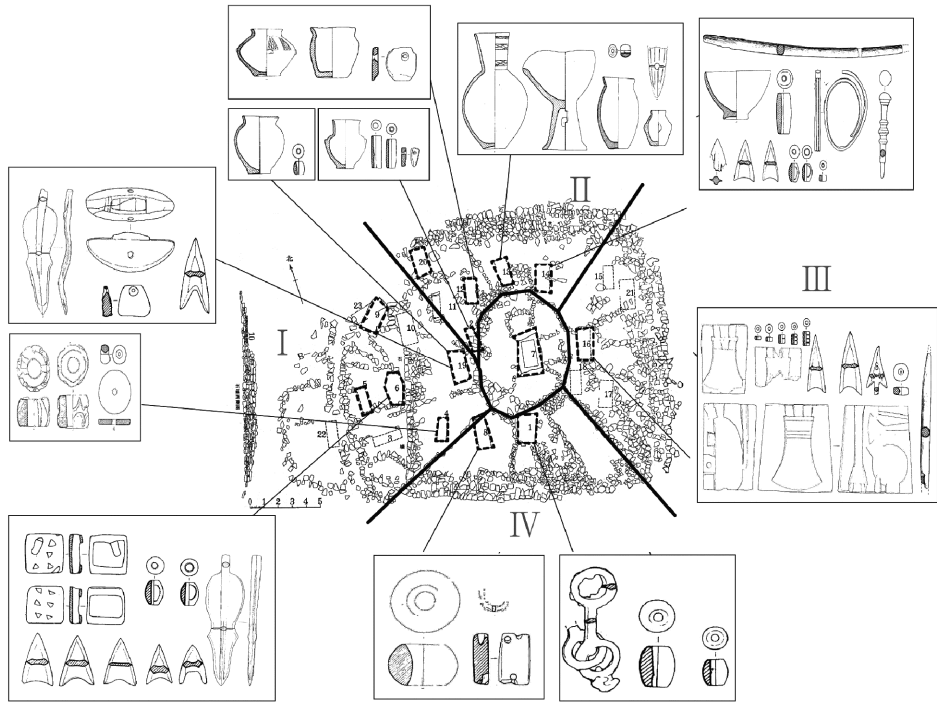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상 적석묘 발견 이전 북한학계가 고조선을 노예소유자사회로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순장의 실시여부를 노예제사회의 징표로 삼는 방법론에도 매우 회의적인 상태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순장제설의 반박을 위하여 강상·누상, 와룡천 적석묘를 다시 검토하면서 순장의 요소인 동시성·강제성·종속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동시성에서는 강상·누상 적석묘 모두 최소 2회 이상 묘역이 부가되었으며, 묘실의 체적에 비하여 많게는 15~18명의 시신을 쌓아 화장하기에는 협소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 인골 개체수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입증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개석이 없어 지속적인 추가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강제성은 인골을 관찰하였을 때 목이 잘리거나 양손이 결박당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유아 사망 또한 7호 묘실 외 다른 묘실의 노예계급이 가족을 가진 것 보다는 순장의 상황을 떠난다면 지배자의 후손이 분묘에 매장되는 것이 오히려 설명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마지막 종속성은 강상 적석묘에서는 분명히 7호 묘실을 중심으로 주변묘실이 차별화되는 것이 관찰되지만 누상과 와룡천 적석묘는 그렇지 않으며, 강상 적석묘 또한 부가된 구역에서는 중심묘실의 부장품이 빈부차를 반영하기에 빈약하다. 묘실의 구조와 크기에 상관없이 부장품이 출토되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씨족전통의 공동체가 세대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부단위들이 성장하며 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하고자 하였다(권오영 1993).

이후 대체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강상·누상 적석묘 피장자들의 관계는 노예가 아닌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에 의해 축조된 일종의 공동묘지이며 강상 적석묘의

방사상 구조는 사회적 위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사회의 분묘로 판단한다(김승옥 2015: 103~104). 강상·누상 적석묘 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우가촌 타두 적석묘는 병렬배치이며 묘실의 인골은 최고 21개체가 서로 겹치거나 엇갈려 있는데 보고자는 추가장시 먼저 안치한 시신을 육탈한 후 다음 시신은 그 위에 안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3). 이는 추가장의 전통이 강상 적석묘 이후에도 지속되지만 탈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장하는 것으로 장법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분화 측면에서도 우가촌 타두 적석묘의 부장품 또한 일상용의 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어 계층사회로 해석하기 보다는 혈연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강상 적석묘가 조성될 시기 정도에는 빈부 격차(姜超 2019) 등으로 인한 계층화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김승옥 2015; 이청규 2012; 이후석 2020·2021; 하문식 2013; 姜超 2019).

최근에는 부장유물 중 청동기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사회분화정도를 해석한 연구도 소개되고 있다. 이후석(2020·2021)은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가 주변지역과의 청동 네트워크 교류를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였으며, 강상·누상 적석묘에서 다수의 청동기가 부장되는 것은 이전에 비해 청동 네트워크가 강화된 것으로 보았다. 청동네트워크의 강화는 청동제련기술의 확산이나 지역사회 엘리트층의 통합·성장 전략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강상 적석묘에서는 12기 묘실에서 30여 점이 청동유물이, 누상 적석묘에서는 5기의 묘실에서 100여 점의 청동 유물이 각각 출토되며, 특히 누상 적석묘에서는 강상 적석묘에 비해 기종 구성이 다양하고, 일부 매장부에 무기류가 다수 부장되며, 마구류, 공구류, 의기류, 장식류 등도 적지 않게 부장되는 것이 특징으로 관찰된다. 또한 요서계통 유물들이 다량 확인되고 있어 교류 관계를 통해 계층화가 더욱 진척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곧 강상·누상 적석묘를 공동체적 혈연 관계로 상정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사회분화가 진척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견해로는 강상 적석묘의 부장품이 노예주로 추정되는 7호 묘실 등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묘실의 구조와 크기에 관계없이 출토되는 점을 직종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다(김용간·황기덕 1967). 강상 적석묘는 방사상으로 구분되는 각 구역에 대형 묘실이 있으면서 유물 조합의 차이가 뚜렷한데 서편(I 구역)은 비파형동검 및 동모, II 구역은 토기류와 소형 장신구, IV 구역은 청동장식과 석제장신구의 부장이 집중된다(그림 6). III 구역의 경우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용범이 출토되는데 16



[그림 6] 강상의 구역별 부장유물 배치도. Ⅲ구역의 용범 출토묘의 피장자를 청동기 제작기술 보유자로 추정한다.
(강인욱 2018: <그림 1> 전제)

호 묘실에서는 석제 용범 4개, 석촉 5점, 동촉 등이 발견되는 정황으로 보아 청동제련 기술을 보유했으며 이는 계층 및 직종별 분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강인욱 2018; 강인욱·조소은 2015).

권오영(1993) 이후 대체로 남한학계의 강상·누상 적석묘의 사회분화에 대한 해석은 대동소이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도한 사회발달단계 설정이나 단순한 몇 가지 요소로 성급하게 계층화의 정도를 단언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즉, 적석묘 피장자의 관계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논쟁의 절차가 없이 수용되었고, 대체로 동조하는 식의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의 몇 측면은 당시 매장의 상황과 일치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다음에서는 사회분화 연구에 있어서 매장양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매장양상과 사회분화 연구에서의 함의

발굴조사 당시도 그러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요동남부의 적석묘를 포함한) 강상·누상 적석묘는 굉장히 매력적인 고고자료이다. 분묘의 구조나 규모, 배치형태, 인골, 장법, 부장품 수량 등이 압도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강상·누상 적석묘의 사회분화 연구에 새로운 시도나 해석이 사라졌다. 가장 먼저 화두가 된 것은 언급했듯이 강상·누상 적석묘의 피장자들이 ‘동시에 순장당한 노예’인가라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 적석묘의 구조, 배치, 부장유물 등의 매장양상에 대한 동시성·강제성·종속성의 측면에서 그들이 순장당한 노예가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피장자들이 세대공동체(권오영 1993)나, 긴밀한 혈연관계로 해석(김승욱 2015; 이청규 2012; 하문식 2013)되는 과정에서는 매장양상이 이전만큼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죽음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호도될 가능성이 크다.

강상·누상 적석묘의 보고자는 여러 개체의 인골이 간층(間層)이 없이 뒤섞여 있고 불에 맞은 개석이 내부에서 발견되어 묘실에서 동시에 화장한 점을 강조(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1966)하는데, 만약 그들이 세대공동체 또는 혈연집단이라고 한다면 한 번에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멸문지화’의 상황이 된다. 동시 매장이 아닌 추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강상 적석묘의 사용 연한이 끝날 때까지 특정 공동체 내에서 상존하는 무덤체계가 되어 묘실을 수시로 개방하며 화장을 한다는 점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시신을 모아서 한 번에 화장을 하거나 ‘간골화장’의 사례로 추정(하문식 2013)하기도 하지만 시신 보관을 위한 묘실의 개폐나 화장 전까지 일정 기간 안치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이 또한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가촌 타두 적석묘 내부에는 추가장의 흔적으로 시신 사이에 자갈과 회토 층이 존재(백종오 2018)하지만 강상 적석묘에서는 이런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더욱 그러하다. 인골의 성별과 구체적 연령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할 순 없지만, 비슷한 연배의 남성 집단매장이라면 전쟁과 같은 사회적 충격으로 인한 전사자의 발생 등이 오히려 이러한 정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강상 적석묘 피장자와 묘실의 배치가 직종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매장 정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은 더욱 어려워진다.

계층을 다루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특히 분묘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그 자체로

통합적이면서도 단일한 상징체(김범철 2017)로서 개별 요소들이 반드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문화 연구에서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분묘에서 관찰되는 차별적 양상을 곧바로 사회적 계층 차이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이 제시(金範哲·朴姓煥 2012; 김종일 2004·2007)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연구자는 없지만 실제 연구에서 제대로 견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석검이나 동검의 부장을 곧바로 계층화의 증거(裴眞晨 2007)로 삼거나 다른 유적 또는 다른 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옮겨와 적용하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남한 청동기시대 분묘에서 관찰되는 사회문화 양상을 다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한다.

열을 이루거나 연결하여 군집을 이루는 배치를 ‘계열묘’라 칭하고 대규모의 묘역을 갖추거나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물을 부장하고 있으면 우세한 지위의 세대공동체 혹은 혈연집단의 가능성(이청규 2012)으로 설명한다. 분묘와 배치와 관련하여 특히 배묘(陪墓)는 한 분묘 옆에 딸린(소형)묘로 정의하는데 배묘가 딸린 분묘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대형이거나 축조시 석재의 구조가 좀 더 정선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장자는 집단의(최)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배묘는 이들과 혈연적 또는 정치·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김광명 2007)으로 여기기도 한다.

배묘는 유력자로부터 귀속지위를 얻은 유·소아가 매장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유·소아묘에 대한 접근도 신중해야 한다. 남한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 분묘에서 관찰되는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 조합을 ‘부모-자녀(소아)’의 가족관계로 이해(禹延延 2011)하는 것은 부모는 장성한 이후에 사망해야 하며 자녀는 반드시 소아일 때 사망해야 하는 상황(金範哲·朴姓煥 2012: 14)으로 매장 당시 동시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강상 적석묘에서 조사된 유아 개체 또한 부모와 함께 죽임을 당했는가 아니면 단순 영아사망으로 판단하는 가는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다. 3세 이하의(영)유아만 매장(釜山大學校 博物館 2004)된 사천 늑도의 옹관묘를 두고 부모와 동시에 매장되었다던가, 귀속지위를 얻은 특별한 아이로 해석하지 않는다. 늑도유적 분묘의 수량(토광묘 72기, 옹관묘 54기), 축조 위치(사면), 배치나 중첩상태, 부장유물 등의 정황을 통해 얻어진 정황적 결론인 셈이다. 이처럼 ‘세대공동체’ 또는 ‘혈연집단’의 상정이나 계층화 정도에 대한 추정은 한 두 사례에 적용할 수는 있으나, 원칙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곤란하다.

위 사례의 세부적인 형태적 변이들은 모두 다르지만, 이 모두에 대한 여러 차원의 분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강상·누상 적석묘의 매장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소 과다하게 해석한 것이 북한학계의 문제점이었다면, 분묘자료 변이에 대한 분석적 시도가 미흡했던 것이 우리 남한학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은 소략한 보고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한반도 남부 청동기시대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이질적인 매장양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강상·누상 적석묘의 매장양상과 사회문화 연구를 되짚어본 것은 남한의 청동기시대 분묘를 잘 해석하기 위한 포석이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장양상에 대한 계량분석과 공간분석, 형질인류학적 사회고고학적 해석(김범철 2017) 등이 시도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최근의 사회문화 연구에서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의 분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김범철 2017; 金範哲·朴姓煥 2012: 13; 김장석 2007; 천선행 2020)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점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죽음과 매장의 상황에 부합될 때, 유연하고 신뢰도 높은 해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V. 맺음말

앞서 강상·누상 적석묘를 되짚어 보면서 한번 정립된 사회문화의 성격이 큰 도전이나 새로운 반향 없이 수용되어 왔던 점을 알 수 있었다. 비단 강상·누상과 같은 적석묘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분묘의 연구들도 안고 있는 문제로 재고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문화 연구가 ‘죽음의 상황’과 매장양상의 정합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요남지역의 적석묘를 소개하고 매장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 학계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불거진 순장의 문제와 남한 학계에서 순장설에 대한 반박, 피장자의 신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강상·누상 적석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비록 노예가 한 번에 순장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세대공동체나 혈연관계의 공동묘지로 추정하기에는 죽음의 상황과 매장양상이 불일치함을 들어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 청동기시대 사회문화 연구

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시 강상·누상 적석묘를 꺼내 살펴 본 것은 형태적 변이 — 분묘의 규모, 구조, 정선도, 노동력 투입, 부장유물 — 과 장제, 인골 등의 정보가 종합적이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때 우리 청동기시대 분묘에도 적용시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이다. 이제 매장의 상황으로 돌아가 세밀한 관찰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상고사학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북방의 재인식: 우리 고대문화 연구에서의 함의」의 발표(박주영 2020)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2. 5. 22 | 심사완료일 2022. 6. 8 | 게재확정일 2022. 6. 16

참고문헌

- 강인구, 1997, 『考古學으로 본 韓國古代史』, 서울: 학연문화사.
- 강인욱,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韓國考古學報』106, 韓國考古學會.
- 강인욱·조소은, 2015, 「기원전 9~7세기 초기 스킷도-시베리아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권의 대형무덤 비교연구: 러시아 투바 아르칸고분과 요령 대련 강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2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1』.
- 권오영, 1993, 「강상묘와 고조선사회」, 『考古歷史學志』9, 東亞大學校 博物館.
- 김경택, 2004, 「韓國 複合社會 研究의 批判的 檢討와 展望: 신진화론적 사회발전도식의 적용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44, 韓國考古學會.
- 김광명, 2007, 「青銅器時代 陪墓에 대하여」, 『天馬考古學論叢: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김광진·도유호·임건상·한길언·정찬영·강병도·채희국·이능식·노경한·정희영·이응수·엄창중·백남운·한용욱, 1989, 『삼국시기의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집』, 일송정.
- 김범철, 2017, 「가덕도(장항)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 신석기시대 매장관행에 대한 통합적 이해 시론」, 『韓國新石器學報』34, 韓國新石器學會.
- _____, 2018, 『가옥, 가족, 가구: 靑銅器時代 사회변화에 대한 家口考古學의 이해』, 충북대학교 출판부.
- 金範哲·朴娃煥, 2012, 「湖西地域 松菊里型 墳墓의 階層化樣相 論議」, 『韓國考古學報』82, 韓國考古學會.
- 김승욱, 2015, 「05. 묘제의 특징과 변천」,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진인진.
-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1967-2,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17, 湖西考古學會.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송국리 유적 형성과정에 대한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적 접근」, 『國史觀論叢』104, 國史編纂委員會.
- _____, 2007,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韓國考古學報』63, 韓國考古學會.
- 김종혁, 1995, 「새로 발굴된 성천군 룡산리순장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95-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리지린, 1971, 「조선고대 제국가의 영역과 고대사회의 성격」, 『역사과학논문집』1971-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미야자토 오사무,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박주영, 2020, 「강상, 누상: 한국 청동기시대 매장양상과 사회분화 연구에의 함의」, 『북방의 재인식: 우리 고대문화 연구에서의 함의』,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상고사학회.
- 박진욱, 1988, 『조선고고학전서』, 사회과학출판사.
- 裴眞晨,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_____, 2012, 「지석묘의 기원 연구를 바라보는 一視覺: 기원론에서 형성론으로」,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엮음, 학연문화사.
- 백종오, 2018, 『요하유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지식산업사.
- 백종오·오대양, 2013, 「遼南地域 靑銅器時代遺蹟의 發掘現況과 研究成果」, 『고조선단군학회』29, 고조선단군학회.
- 釜山大學校 博物館, 2004, 『勒烏 貝塚과 墳墓群』, 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29輯.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중국 동북지방의 고대무덤(1)』, 진인진(영인본).
- 송호정, 2016, 「최근 한국상고사 논쟁의 본질과 그 대응」, 『역사와 현실』100, 한국역사연구회.

-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6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 오대양, 2015,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 『東洋學』6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 _____, 2016, 「대련지역 초기적석층유적의 현황과 특징: 홍산문화 후기유형과의 연관성검토」, 『白山學報』105, 白山學會.
- 禹姬延, 2011, 「錦江中流 松菊里型무덤의 象徴構造에 관한 試論的 考察」, 『湖西考古學』25, 湖西考古學會.
- 이선복, 1992, 「북한 고고학사 시론」, 『東方學志』74,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 이청규, 2012, 「요동과 한반도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의 과제」,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경남 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엮음, 학연문화사.
- 이후석, 2019,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고고학보』111,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0,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체계와 사회: 쌍방문화·신성자문화·강상문화를 중심으로」, 『崇實史學』45, 崇實史學會.
- _____, 2021,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 네트워크와 교류」, 『先史와 古代』66, 韓國古代學會.
- 任世權, 1983, 「묘제Ⅲ(積石塚): 춘천 천전리 적석층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13, 國史編纂委員會.
- 趙仁成, 2016, 「고대사과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韓國史研究』172, 韓國史研究會.
- 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 천선행, 2014, 「요동반도 남부 청동기시대 토기문화의 전개」, 『嶺南考古學』70, pp.
- _____, 2020, 「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형태 시론」, 『韓國青銅器學報』26, 韓國青銅器學會.
- 하문식, 2006, 「대동강문화론에서 본 북한학계의 연구 경향」, 『단군학연구』14, 단군학회.
- _____, 2013, 「遼南지역의 돌무지무덤연구」, 『先史와 古代』38, 韓國古代學會.
- 황기덕, 1987a,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 사회관계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1987-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_____, 1987b,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사회관계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1987-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_____, 1990, 「고조선국가의 기원」, 『고고민속문집』12, 사회과학출판사.
- 황재훈, 2015, 「서북한지역 지석묘 연구 검토: 형식 및 편년을 중심으로」, 『고고학』14-3, 중부고고학회.
- 姜超, 2019, 「遼南地區積石塚調查與研究」, 遼寧師範大學 專業碩士學位論文.
- 旅順博物館, 1960, 「旅順口區後牧城驛戰國墓清理」, 『考古』1960-8.
-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3, 「大連于家砬頭積石墓址」, 『文物』1983-9, 文物出版社.
-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雙砬子與崗上一—遼東史前文化的發現和研究』.

A Review of the Gangshang and Loushang : Korean Bronze Age Burial Aspec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Differentiation Studies

Park, Ju-Young(Lecturer,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Looking back on Gangshang (崗上) and Loushang (樓上), it was recognized that the social difference character that had been developed had been accepted without any major opposition or new repercussions. However, since this is an issue in studies of all tombs, including stone mound tombs, it is decided that there should be an opportunity for improvement.

In the process, social differentiation studies state that the conformity of burial aspects to 'the contexts of a death' could be a problem. Thus, this study introduced and analyzed the burial styles of stone mound tombs in the Lianan a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clarified the issue of the sacrificial burial, which was raised in a debate over social formation in the North Korean academic community, as well as the refutation of the theory of the sacrificial burial in the South Korean academic community and views on the status of the buried people.

Next, this study highlighted that it would be required to investigate numerous options, to highlight the current studies of Korean bronze age social differentiation's conflicting condition, and to seek answers. Rather than assuming the tombs as the cemetery for communities of kinship or generation, a new concept of stone mound tombs in Gangshang and Loushang was developed due to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circumstances of death and the burial aspects.

Gangshang and Loushang were brought up and reexamined because there

are comprehensive morphological variations—the scale, structure, and refinement of the tomb, labor force investment, and buried relics—funeral practices, and information form the human remains . Hopefully, better alternatives can be presented through a lot of discussions, going back to the situations of burials.

Key words : Gangshang (岡上), Loushang (樓上), Stone Mound Tombs, Burial Aspects, the Context of a Death, Social Differentiation